

# '1930 양림살롱' 청년 아티스트 살롱 콘서트

## 문화가 있는 날

광주문화재단 '시민극장' '청춘마이크' 25개팀 공연 아름다운 유스퀘어음악회 공공도서관 대출 두배 이벤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날'(29일)이 봄을 맞아 본격 시동을 건다. '1930 양림살롱'은 2년 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청춘마이크' 참여팀들은 즐거운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1930 양림살롱'은 1930년대 광주를 소재로 마을을 무대삼아 펼쳐는 문화예술 행사다.

올해 눈에 띄는 기획은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살롱콘서트'(오후 5~8시)다. 한희원미술관, 율희문화관, 다형다방 등 마을 곳곳 문화공간과 카페에서 청년 아티스트 10여팀이 참여해 R&B, 재즈, 통기타 등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장소 특색형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를 비롯해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과 DJing그룹 'RGB'가 함께하는 댄스파티 '양림판스쿨', 작곡가 이승규가 진행하는 '양림의 거리'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지역 카페들과 연계해 5000원에 커피 3잔을 즐길 수 있는 '마음껏 커피데이'는 양림오거리 주변 6개 카페가 새롭게 참여한다. 문의 070-4239-504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전 11시부터 브런치 콘서트를 연다. 이번달은 여행작가 손미나씨가 나서 '로맨스 인 브리튼'을 주제로 영국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비틀즈를 본따 서울 흥대거리에서 활동하는 '타블즈'가 출연해 비틀즈 음악을 공연한다.

관람료 2만원. 문의 1899-5566. 광주문화재단은 점심식사 후 맛있는 차와 함께 야외광장에서 즐기는 '시민극장-문화가 있는 날'을 준비했다. 29일 낮 12시 1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장.

'시민극장'은 3월부터 6월까지 클래식, 뮤지컬,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공연은 'EN. VOICE(엔 보이스·대표 이준용)'를 초청해 클래식, 뮤지컬 음악을 들려준다. '행복을 주는 사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황수', 'O Sole mio(오 솔레 미오)' 등 친숙한 곡을 연주한다.

'이엔 보이스'는 히브리어로 '부르짖



'1930 양림살롱'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연극 '1930 모던걸 다이어리'.

<뉴스컴퍼니 제공>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장에서 공연하는 남성 중창팀 'EN. VOICE'

<광주문화재단 제공>

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바리톤 이형기·이준용, 테너 유정석·장재연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을 찾은 모든 시민들에게는 음료가 제공되며 4월 공연에는 '박수용 색소폰 5중주'가 참여한다. 문의 062-670-7943. 올해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주관처를 새롭게 맡아 선별한 '청춘마이크' 팀들도 무대에 오른다. '청춘마이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권에서는 3.6대1의 경쟁률을 뚫고 25팀이 활동한다.

광주에서는 양림동 양림오거리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오후 4시40분부터 6시까지 어쿠스틱팀 '그란드', 이진우 통기타 가수가 감성을 자극한다. 전남 담양 담빛길에서는 오후 5시부터 '나린소리' 팀이 퓨전국악을, '깨비매직'팀이 마술쇼를 선사한다.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서는 낮 12시부터 전통국악팀 '국악바

리'와 포크음악팀 '이상한 계절'이 공연한다. 문의 061-280-5829.

유·스퀘어 실내광장에서는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티나 무'와 함께한다. 지난해 SBS 음악프로그림 '보컬 전쟁 : 신의 목소리'에 출연한 보컬 김진성과 어쿠스틱 기타 정민석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빛속에서', '만약에 만약', '듣는 편지', '너를 위해', '걱정말아요 그대' 등 유명곡이 래퍼토리다.

또한 유·스퀘어는 연극 '선수의 탄생' 관람료를 60% 할인판매(1만2000원)하며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공연 초대권을 증정하는 명함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2-360-8431.

전남도립국악단은 '해설이 있는 수오 음악회 휴(休)'를 오전 11시 남도소리를 립터에서 선보인다.

첫 무대는 대중가요 '여수밤바다', '벚꽃엔딩'을 아쟁, 가야금 2중주로 들려주

고 '배정혜류 흥푸리'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타령' 대목과 드라마 추노 OST '비이런리', 설장고 놀이,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1-285-6928.

국립광주박물관은 오후 7시부터 한시간 동안 '신을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선사·고대문화실, 농경문화실을 학예사들과 함께 둘러보는 '큐레이터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후 7시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여성의병장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통체험극 '발할머니'를 선사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두배 더 빌릴 수 있는 '대출 두배 이벤트'를 펼친다.

그밖에 이날 개봉하는 '원라인', '공각기동대 : 고스트 인 더 셸' 등 영화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오후 5~9시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여수 출신 김미순 시인의 희망 찾기

### '봄 배달 왔습니다' 펴내

산문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다. 장르의 특성상 터러는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 담길 수밖에 없다. 여수 출신 김미순 시인이 최근 펴낸 '봄 배달 왔습니다'(양문)는 저자의 삶의 기록이 담긴 소박한 산문집이다.

저자는 지난 2015년 뇌출혈로 천직이라 생각했던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교직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변화시켜보고자 했던 꿈이 좌절된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2016년 가족, 교직생활 등을 소재로 쓴 첫 시집 '아주 가끔'을 출간함으로써 세상과의 동행을 시도했다.

이번에 펴낸 산문집 또한 이전부터 꾸준히 써두었던 글들을 엮은 것으로, 저자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가 오롯이 담겨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지인들과의 교감, 애증이 교차했던 교직생활, 삶의 버팀목이 돼 준 신앙생활이 정감어린 필자로



쓰여 있다.

김 씨는 비록 "저의 생각과 몸짓은 완전히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야 맞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그림으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심경 등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한편 문학박사인 김순병 시인은 추천사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큰 시련이지만 문학을 통해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크나큰 아픔이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이 책의 저자만이 쓸 수 있는 독자적인 세계가 작품으로 구현되어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장흥출신 위백규 선생 풍수사상 연구

### 유기상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

호남 3대 실학자로 꼽히는 장흥 출신 존재 위백규 선생의 풍수사상을 연구한 책이 출간됐다.

전북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문학박사 유기상씨가 쓴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은 한국 풍수의 역사적 전개 양상,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의 풍수생활의 실상을 최초로 정리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발간된 풍수 사상 연구 관련 책들이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기록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비해 이 책은 조선 민중들의 보고로 평가되는 이재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토대 삼아 민중풍수생활을 생생하게 복원해냈다.

책에는 또 위백규 선생 이외에도 호남 3대 실학자인 고창의 이재 황윤석, 순창의 여암 신경준의 사상과 함께 한국학계 최초



로 북한의 풍수사상 흐름도 정리했다.

책은 우리나라 실학의 산실하면서도 조명되지 못했던 호남 3대 실학자들의 풍수사상 업적을 발굴, 호남 실학의 다

양성과 빛나는 성과들을 널리 알렸다. 특히 역대 유학자가 쓴 풍수 논문의 압권인면서도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백규의 '원풍수'와 탁월한 정책 제안이라고 평가한 '묘지제도개혁론'도 발굴, 소개하고 있다.

유씨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9급 공무원에서 출발,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 내무부, 전북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2017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 참여 단체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7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전국 중·고등학교 연극동아리이며, 참가작은 '청소년의 바른 우리말 사용 및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창작극이다. 참가 희망 단체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메일(kfta11@kfta.or.kr) 또는 우편으로 참가신청서와 출품계획서를 제출

하고, 8월30일까지 대본과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접수된 대본과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12개 연극동아리(팀)에는 각각 공연 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2차 심사는 10~12월에 공개 공연으로 진행되며 으뜸상 수상팀에는 문제부 장관상(상금 100만원) 등이 수여된다. 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 02-570-5662. /김미은기자 mekim@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평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평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사무실] 전남 나주시 보산동 창고 및 사무실 토지 1,445㎡ 건물 301㎡ 감평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1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평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 · 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 대 · 임야 52,299㎡ 분할매수가 평당 4만5천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